

야권 대거 집결 ... '노무현 정신' 계승 다짐

김해 봉하마을서 盧 전대통령 4주기 추도식 새누리 “노 정신 이어받아 통합정치 할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옆에서 야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을 비롯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진병현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 등 야권 주요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 이병관 이사장과 문성근 이사 등 노무현재단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고위정책회의를 24일로 미루고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해 현역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도식 참석차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은 2010년 1주기 추도식에 당시 한나라당 김부성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후 3년 만이다. 정부에서는 이종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추도식 사회는 명예갑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이 맡았다. 추도식은 야

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고영구 전 국정원장의 추도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곡, 유족 인사말, 추모시 낭송, ‘상록수’ 합창, 묘역 참배 등 순서로 거행됐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추도사에서 “대통령님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비듯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진병현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 등 야권 주요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등 참석자들이 헌화와 분향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현 재단 측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인원은 약 3000명, 이날 하루 봉하마을을 찾은 사람은 약 1만 명 정도라고 파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애도를 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 강조했던 국민통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박용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계승자로서 ‘대통령 노무현’ 시절의 공과 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그것을 안고 가는 한편 ‘정치인 노무현’의

도전을 기억하며 그가 남긴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 곳곳에서 지난 민주화 과정을 폄해·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전 대통령 말씀의 울림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 평화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함께 굳건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은 아직 멀지만 하고 진보의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그러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사회경제민주화와 정의의 바로 세우고 노동자·농민·깨어있는 시민의 빛이 되는 진보정의의 담으로 나아가겠다”고 논평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무관사에서 임내현 광주시당위원장과 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당직자·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자 노트

기아차 광주공장 아픈 과거 잊지말아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시끄럽다. 지난해 초 협력업체 임직원이 모여 ‘62만대 증산’을 촉구했고, 다음날엔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광주공장 노조를 직접 만나 증산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압력을 가했다.

23일엔 광주공장 간부사실과 현장관리자, 협력업체 직원들이 3월에 이어 ‘제2차 증산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역경제계가 나서서 62만대 증산을 촉구하고 있지만 기아차 노조는 ‘자체 일정’을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최근 연화 약세로 인한 일분자의 반격 등으로 기아차 생산량은 전년 1분기 대비 7.7%가 줄었다. 현실이 이런데,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3000여원을 들여 62만대 생산시설을 갖추고도, 4개월째 설비를 돌리고 있다. 작게는 기아차의 손해고, 크게는 지역 경제와 국가적 손실이다.

경제계와 지역민들은 광주 수출액의 35%를 차지하는 수출 전진 기지가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놓고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불과 15년 전인 지난 1998년,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요 생산 차량은 버스과 트럭이 전부였다. 연간 생산량이 채 6만대가 되지 않았다.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과정에서 광주공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장이었다. 현대차 인수 뒤에도 기아차는 수 차례 위기가 있었다.

그때마다 지역민들은 큰 사람으로 기아차를 지켜왔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광주기업사랑협의회’는 당시 환율하락의 파고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아차 광주공장을 돕기 위해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지역기업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시민 100여명은 ‘기아차 구매공동협약 체결 및 동참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아차 177대를 구매했다. 광주시는 도심 20곳에 ‘기아차를 사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운동을 주도했다.

이제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민들의 큰 사람에 보답을 할 때다.

23일 제2차 증산결의대회에서 ‘광주공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라는 10분짜리 동영상 상영됐다. 화면에는 공장의 태동기부터 부도를 맞아 힘겨웠던 시절이 흘러갔다.

30여 년을 광주공장에서 일한 김노수 반장은 “당시 회사를 떠난 동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현재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왔다”고 했다. 다른 사원은 “증산이라는 좋은 기회가 온 만큼 꼭 성공시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의 말에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에 대한 해법이 들어 있는 듯 하다. 광주공장은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지역민의 큰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해법이 보일 것이다. /exian@kwangju.co.kr



임동일 경제부 기자

‘세계 영향력 있는 여성’朴대통령 11위

포브스 선정, 메르켈 1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1일(현지시간) 선정,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The world’s 100 Most Powerful Women)’ 11위로 선정됐다.

박 대통령이 이 순위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 순위에 포함됐다.

포브스는 선정 이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15년 이래 최고의 특표물로 당선된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포브스는 이어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라며 “아버지 박정희 전 대

통령이 1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 어머니가 암살된 후 22세의 나이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했다”고 전했다.

1위에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차지했다. 메르켈 총리는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에 게 1위 자리를 한 차례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줄곧 1위를 지켜왔다.

이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세계 최대 자산단체인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대표이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이 5위 내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北 “6·15선언 기념행사 남북공동 개최하자”

“개성 또는 금강산서”

북한이 내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남측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받은 팩스 원본을 공개했다.

북측위는 남측위에 보낸 팩스에서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다”며 공동행사를 제안했다.

정현곤 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북측이 개성을 행사 장소 가운데 하나로 제안한 것은 개성공단을 살리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

라며 “행사가 이뤄지면 끊긴 군 통선로를 회복해야 하는 등 남북 당국 사이에 협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한에서 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6·15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지만,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돼 2009년부터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독도는 한국 땅”... 日 학자들 독도서 선언

일본의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 3명이 23일 독도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울릉군 사동항에서 독도항당 관계자, 중국·몽골 유학생 등 19명과 함께 배편으로 출발해 오전 9시20분께 독도에 도착

했다. 일행은 구보이 노리오(久保井 規夫) 모모야마 학원대학 전 교수, 구로다 요시히로(黒田 伊彦) 오사카 소인 여자대학 전 강사, 이치노 헤 쇼코(一戸 彰晃) 아오모리 운수사 사납 등 3명이다. /연합뉴스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공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금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129억 최저가20억
-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172억 최저가20억
- ▷ 서구 쌍촌동 2층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3억8천만
- ▷ 영광읍 녹서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14억3천만 최저가12억4천만
-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등산단 일반공업2층공창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126억 최저가15억
-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 ▷ 회수읍 연양리 자연녹지 담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추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